

세상을 이해하는 명언, 잠언, 속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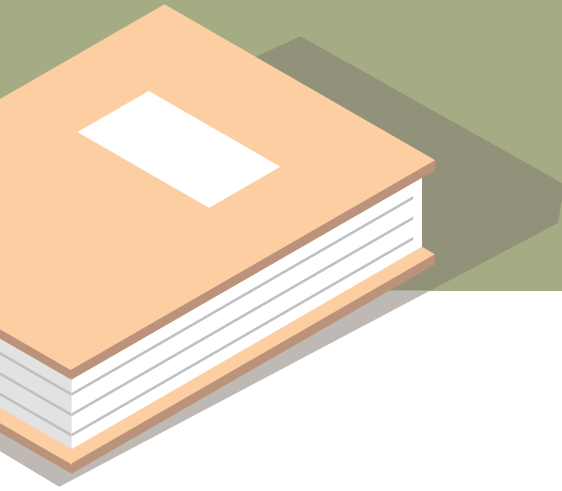
명언



인내, 노력에 대한 명언, 잠언, 속언

명언





인내, 노력에 대한 명언

- 학문은 점진적으로 나아가지 뛰어가지 않는다.

<T.매콜리, 「수필집」, 1800~1859>

- 깨달음은 사람에게 노여움을 참게 한다.

<「구약」>

- 안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.

<아리스토텔레스, 「변증론」, BC 384~BC 322>

- 인간은 자기가 남보다 못한 것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법이다.

<프로타고라스, BC 485~BC 414>

- 고생이여, 괴로움이여, 겹쳐 오라.

<셰익스피어, 1564~1616>

- 구하라, 그러면 얻으리라.

<「신약」>

- 새가 날기 위해 태어났듯이, 인간은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.

<라블레, 「제4의 서」, 1494~1553>

- 개인의 장점은 숨어 있기 때문에 찾아내야 한다.

<플로리안, 「우화」, 1755~1794>

- 절약만큼 확실한 이익의 원천은 없다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 「격언집」, BC 85~BC 43>

- 나의 발명은 한 가지 일에 무수한 경험을 쌓아 올린 결과다.

<에디슨, 1847~1931>

- 낙숫물이 돌을 뚫는다.

<반고, 「전한서」, 32~92>

- 너는 너의 이마의 땀으로 너의 빵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.

<톨스토이, 1828~1910>

- 열심히 일하는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.

<W.블레이크, 「지옥의 격언」, 1757~1827>

- 노동은 성화의 섬광인 양심을 항상 너의 가슴 속에 비춰 준다.

<워싱턴, 1732~1799>

-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견뎌야 한다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 「격언집」, BC 85~BC 43>

- 행복한 날들을 위하여 견디고 조심하라.

<베르길리우스, 「아이네이스」, BC 70~BC 19>

- 때는 얻기 어렵고, 잃기 쉽다.

<유안, 「회남자」, BC 179~BC 122>

- 위험은 지체하는데 있다.

<티투스리비우스, 「로마 건국사」, BC 59~AD 17>

- 시간을 가진 자가 인생을 갖는다.

<존플로리오, 「첫번째 열매」, 1553~1625>

- 돌에 쏘힌 화살

<사마천, 「사기」, BC 145~BC 86>

-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.

<범엽, 「후한서」, 398~445>

- 네 삶의 모든 행동을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행하라.

<마르쿠스아우렐리우스, 「명상록」, 121~180>

- 뭔가를 하려거든 정신 차려 열심히 하라.

<플라우투스, 「페르시아 사람」, BC 254~BC 184>

- 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생기가 필요하지만, 행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기가 필요하다.

<조셉주베르, 「사유, 잠언, 에세이」, 1754~1824>

- 오늘 아니 배우고 내일 있다 말하지 말라.

<주자, 1130~1200>

- 다른 사람보다 더 일하지 않으면, 다른 사람보다 더 커지지 않는다.

<세르반테스, 「돈키호테」, 1547~1616>

- 일은 고통을 무더지게 한다.

<키케로, 「투스쿨룸에서의 담론」, BC 106~BC 43>

- 못 참을 걸 참는 것이 참는 것.

<홍석주, 「독서록」, 1774~1842>

-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 간다.

<공안국, 「공자가어」, BC 156~BC 74>

- 훌륭한 작가가 되고자 한다면 글을 써라.

<에픽테토스, 「대담집」, 50~135>

- 그대의 작품을 스무 번 거듭 만들어라. 끊임없이 다듬고, 또 다듬어라.

<부알로, 「시학」, 1636~1711>

- 반근착절을 만나 이기를 안다.

<범엽, 「후한서」, 398~445>

- 요정 칼립소는 결코 오디세우스를 설득하지 못했다.

<호메로스, 「오디세이아」, BC 800~BC 750>

- 승자의 대의는 신을 기쁘게 하고, 패자의 대의는 카토를 기쁘게 한다.

<루카누스, 「파르살리아」, 39~65>

- 번영은 충실을 바라고, 역경은 충실을 요구한다.

<세네카, 「아가멤논」, BC 4~65>

- 분발하여 먹는 것도 잊는다.

<공자, 「논어」, BC 551~BC 479>

- 불은 쇠를 시험하고, 역경은 강자를 시험한다.

<세네카, BC 4~65>

- 아무리 큰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를 맡은 사람이 훨씬 더 커보여야 한다.

<발타자르그라시안, 「지혜의 기술」, 1601~1658>

- 사람은 많은 고난을 당할수록 아는 것도 많아진다.

<호메로스, BC 800~BC 750>

-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재능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.

<라브뤼에르, 「성격론」, 1645~1696>

- 작가들은 노고의 사람들이다.

<발자크, 「금언과 성찰」, 1799~1850>

- 잠언은 인생이라는 나무의 열매여야 한다.

<D.니자르, 「환자의 꿈」, 1806~1888>

- 절제란 작은 것에 대한 만족이라는 뿌리를 내리고
고요함과 평온이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이다.

<페르디낭 드니, 「브라만 여행자」, 미상~1853>

- 순간에도 의무없는 시간은 없다.

<키케로,BC 106~BC 43>

- 바닷가를 잃을 용기가 없으면, 새로운 대양을 발견할 수 없다.

<A.지드,1869~1951>

- 쓰러진 뒤에 그친다.

<「예기」>

- 주인이 없을 때 종을 알아본다.

<안그뤼터,「명시선」,1560~1627>

- 조금 더 알고, 조금 덜 살아야 한다.

<발타자르그라시안,「지혜의 기술」,1601~1658>

- 절제와 노동이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의사이다.

<J.J.루소,「에밀 또는 교육론」,1712~1778>

- 작은 개울이 큰 강을 만든다.

<오비디우스,「사랑의 치료법」,BC 43~ AD 17>

- 오로지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. 살아가는 행복도 의미도 모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.

<체홉,1860~1904>

- 옥도 같지 않으면 빛이 없다.

<「실어교」>

- 노인이 맹위를 떨치는 것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,
우리가 그들에게 인종하기 때문이다.

<셰익스피어, 「리어왕」, 1564~1616>

- 우리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,
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점에 있다.

<골드스미스, 1728~1774>

- 인내는 모든 문을 연다.

<라퐁텐, 1621~1695>

-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.

<루소, 1712~1778>

- 인내는 일을 받쳐 주는 자본이다.

<발자크, 1799~1850>

- 멈출 줄 아는 자는 절대로 몰락하지 않는다.

<노자, 「도덕경」, BC 601~미상>

- 제우스는 절제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준다.

<아이스킬로스, 「에우메니데스」, B.C. 525~B.C. 456>

- 절제하는 사람이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이다.

<플라톤, 「정의」, 1754~1824>

- 절제는 금으로 된 굴레이다.

<로버트버턴, 「우울의 해부」, 1577~1640>

- 일촌의 광음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.

<주희, 1130~1200>

-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오래가지 못한다.

<마르티알리스, 「풍자시집」, AD 40~ AD 104>

- 온갖 좋은 잠언이 세상에 있다. 다만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.

<파스칼, 「팡세」, 1623~1662>

- 잠을 사랑하지 말라.

<「구약」>

- 정신일도 하사불성

<주자, 1130~1200>

- 일을 하고, 고생을 마다하지 마시오. 일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재산이오.

<라퐁텐, 「우화」, 1621~1695>

- 좁은 문으로 들어서라.

<「신약」>

- 지나친 잠은 피곤하게 만든다.

<호메로스, 「오디세이아」, BC 800~BC 750>

- 목공만 한 연장 없다.

<라브뤼에르, 「성격론」, 1645~1696>

- 각자의 일에 충실하기만 하면, 소들도 잘 지켜질 것이다.

<플로리앙, 「우화」, 1755~1794>

- 자신의 직업으로 살아야 한다.

<라퐁텐, 「콩트와 단편」, 1621~1695>

- 손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구원이다.

<라퐁텐, 「우화」, 1621~1695>

- 글쓰기를 위한 첫째 조건은 생생하고 강하게 느끼는 방법이다.

<부알로, 「시학」, 1636~1711>

- 하늘이 대임을 이 사람에게 맡기려고 할 때,
반드시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고되게 한다.

<맹자, BC 372~BC 289>

-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.

<「여씨춘추」>

- 너의 노동으로 네 삶의 값을 치러야 한다.

<포킬리데스, 「격언집」, BC 560~미상>

- 곧은 길에서 길을 잃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.

<괴테, 「잠언과 성찰」, 1749~1832>

- 능숙함이란 매사의 끝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능력이다.

<플라톤, 「정의」, 1754~1824>

- 솜씨만 좋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으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.

<보브나르그, 「성찰과 잠언」, 1715~1747>

- 잘 섬길 줄 아는 것은 주인이 될 자격을 갖춘 것이다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 「격언집」, BC 85~BC 43>

- 시중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. 그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.

<플로리앙, 「우화」, 1755~1794>

- 존엄은 성실함과 마찬가지로 너의 재산이다.
누가 너에게서 그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겠는가?

<에픽테토스, 「대담집」, 50~135>

- 훌륭한 종은 귀담아듣지 않고도 잘 듣는다. 그 자신이 귀이고 발이기 때문이다.

<프리드리히실러, 「피콜로미니 부자」, 1759~1805>

- 좋은 나무를 애써 기르는 자는 좋은 그늘을 얻는다.

<세르반테스, 「돈키호테」, 1547~1616>

- 그래도 지구는 움직인다.

<갈릴레오 갈릴레이, 1564~1642>

- 재주 있는 자가 강한 자보다 앞선다.

<포킬리데스, 「격언집」, BC 560~미상>

- 솜씨 좋은 도둑이 못 여는 문은 없다.

<Ch.부르디네, 「거장 피에르 페피의 전설」, 15??~15??>

- 존엄은 올바르고 확고한 이성에서 나온 위엄이다.

<플라톤, 「정의」, 1754~1824>

- 나의 결점을 견디는 자는, 설령 그가 내 하인이라 해도 나의 스승이다.

<괴테, 「잠언과 성찰」, 1749~1832>

- 부활하는 날, 사람들은 너에게 네 부친이 누구냐고 묻지 않고, 너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물을 것이다.

<사아디, 「장미정원」, 1184~1292>

- 학문이 있는 우자는 무지한 인간보다도 한층 더 어리석다.

<몰리엘, 「여학자」, 1622~1673>

-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는 것이 덕이 있는 자의 특징이다.

<플라우투스, 「트리눔무스」, BC 254~BC 184>

- 출세하지 못한 재능은 있지만, 재능 없이는 결코 출세하지 못한다.

<라로슈푸코, 「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」, 1613~1680>

- 크고 높은 자리는 커다란 예속이다.

<세네카, 「폴리비우스에게 보내는 위로」, BC 4~65>

- 연기된 것은 잃은 것이 아니다.

<앙투안루아젤, 「관례집」, 미상~1607>

-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견뎌내어라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 「격언집」, BC 85~BC 43>

- 천재성이 훌륭한 작품을 시작하지만 완성하는 것은 노력이다.

<조셉주베르, 「사유, 잠언, 에세이」, 1754~1824>

- 가장 힘이 있는 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다.

<세네카, 「루킬리우스에게 보낸 서한」, BC 4~65>

- 좋은 농기구들이 있다고 해도 때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.

<맹자, 「맹자」, BC 372~BC 289>

- 아무 때나 양털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.

<장르봉, 「프랑스 격언집」, 1319~1364>

- 인내는 영혼에 숨겨진 보석과 같다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 「격언집」, BC 85~BC 43>

- 인내는 평화를 거두어들이고 성급함은 후회를 거두어들인다.

<이븐가비롤, 「생명의 샘」, 1021~1058>

- 인내에 익숙해져 있다면 당신은 이미 많은 일을 한 것이다.

<괴테, 「잠언과 성찰」, 1749~1832>

- 인내는 모든 정원에서 피지 않는 꽃이다.

<필립 매신저, 「새 차용금 상환법」, 1583~1640>

- 인내는 인간의 두 번째 용기이다.

<안토니오 데 솔리스, 「멕시코 정복자들의 역사」, 1610~1686>

- 인내와 오랜 시간은 힘이나 분노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.

<라퐁텐, 「우화」, 1621~1695>

- 인내는 희망하는 기술이다.

<보브나르그, 「성찰과 잠언」, 1715~1747>

- 다른 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도 할 수 있다.

<몽테뉴, 1533~1592>

- 알렉산더 대왕은 키가 작았다.

<에라스무스, 「격언집」, 1466~1536>

- 어떠한 위기도 꺾지 않고 이기는 것은 영광 없는 승리이다.

<코르네유, 「르시드」, 1606~1684>

- 고통도 나쁨의 기쁨이 있고, 위기도 나쁨의 매력이 있다.

<볼테르, 「앙리아드」, 1694~1778>

- 위기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 「격언집」, BC 85~BC 43>

- 열정은 언제나 설득시키는 유일한 웅변가이다.

<라로슈푸코, 「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」, 1613~1680>

- 위대한 자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위대할 때가 있다.

<보브나르그, 「성찰과 잠언」, 1715~1747>

- 위인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타버릴 운명을 지닌 유성이다.

<나폴레옹1세, 「금언과 성찰」, 1769~1821>

- 위인들만이 큰 결점을 가질 수 있다.

<라로슈푸코, 「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」, 1613~1680>

- 필요는 승리할 줄만 안다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 「격언집」, BC 85~BC 43>

- 필요 앞에서는 법도 소용이 없고, 따라서 면제를 정당화한다.

<성베르나르, 「계명과 면제에 대한 개론」, 1489~1534>

-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.

<J.스위프트, 「걸리버 여행기」, 1667~1745>

- 필요성은 혹독한 교장 선생님이다.

<몽테뉴, 「수상록」, 1533~1592>

- 필요성이 소심한 자를 용감하게 만든다.

<살루스티우스, 「카틸리나 전쟁」, BC 86~ BC 35>

- 필요성을 덕으로 삼아야 한다.

<히에로니무스, 「서한집」, 345~419>

- 세 가지 폭군이 있다. 바로 법과 관례와 필요성이다.

<메난드로스, 「단편집」, BC 342~BC 291>

- 대담함은 왕관 없는 왕권이다.

<「탈무드」>

- 부지런함은 행운의 어머니이다.

<세르반테스,「돈키호테」,1547~1616>

- 인생의 역경은 침묵의 기술을 가르쳐준다.

<세네카,「티에스테스」,BC 4~65>

- 우리는 '침묵'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.

<Th.칼라일,「일기」,1795~1881>

- 침묵은 '그렇다'고 대답한다.

<에우리피데스,「오레스테스」,BC 484~BC 406>

- 침묵은 시인이다.

<에우리피데스,「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」,BC 484~BC 406>

- 손수 장작을 패라. 이중으로 따뜻해진다.

<헨리 포드,1863~1947>

- 천천히 서두르시오.

<아우구스투스황제,BC. 63~A.D. 14>

- 너는 오늘을 붙잡아둘 수는 없으나 잃지 않을 수는 있다.

<테오프라토스,BC 373~ BC 287>

-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자는, 할 수 있는 것을 원해야만 한다.

<티렌티우스아페르, 「안드로스에서 온 아가씨」, BC 185~BC 159>

- 의무의 보상은 의무 자체이다.

<키케로, 「목적론」, BC 106~BC 43>

- 의무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.

<괴테, 「잠언과 성찰」, 1749~1832>

- 그대의 의무를 다하고 신들에게 맡겨라.

<코르네유, 「오라스」, 1606~1684>

- 의무를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훨씬 쉽다.

<루이드보날, 「잠언과 성찰」, 1754~1840>

- 의무는 무신론자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신이다.

<빅토르위고, 「정신의 네 바람」, 1802~1885>

- 성공에는 아무런 속임수도 없다.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전력을 다해왔을 뿐이다.

<데일 카네기, 1888~1955>

- 화살이 과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활 쏘는 이가 과녁으로 화살을 보내야 한다.

<태조, 「태조실록」, 1417~1468>